

# '명품 트래킹코스' 최고의 관광 명소로

### 군산시, 말도에서 방축도 연결 14km 트래킹코스 개발 키로

군산시가 말도~방축도 명품 트래킹 코스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옥도면 말도리 3개의 유인도서 말도 명도 방축도와 유인도서 사이에 위치한 2개의 무인도서 보봉도 광대섬까지 5개(말도~보봉도~명도~광대섬~방축도)섬을 4개의 인도교(총 L=1.3km 사업비 270억 원)로 연결하고 섬 내부의 길을 인도교와 연결해 말도부터 방축도까지 명품 트래킹코스 14km를 개발할 예정이다.

트래킹코스 개발을 위해 인도교 사업비 외 별도로 30억 원을 확보하고 올해 280백만 원을 투입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달 말 착수에 2019년 3월 용역을 완료한 후 내년 상반기 안에 공사 착공, 2022년 인도교 설치와 동시에 트래킹코스 개발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트래킹코스의 중심이 되는 인도교 설치공사는 작년 12월 착공하여 2018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

하고 있으며, 올해 인도교 4개소 중 광대섬~방축도간 현수식출렁다리(83m)를 설치 완료하여 하반기에는 트래킹코스의 일부 방축도구간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옥도면 말도리는 숨겨진 비경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섬들로 구성되어 있는 곳으로, 인도교가 설치되면 도서자원과 인도교를 연계해 말도에서 방축도까지 14km를 걸으며

힐링과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명품 트래킹 코스가 조성되며, 이 코스가 군산시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군산군도 연결도로 완전 개통과 더불어 말도리 인도교와 명품 트래킹코스는 군산시 관광광역화의 중심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 명소로 거듭나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2023 새만금 세계잡버디 대회'와도 시너지효과를 발휘해 군산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관 기자



## 익산시, AI 방역실태 긴급 점검

### 가금농가, 소독·기본 방역수칙 준수 당부

최근 경기도와 충남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AI 특별경계령이 시행됐다. 익산시(시장 정현을)는 신단계, 종계 45농가에 생석회 3만5,700kg공급하고, 신단계, 종계 알 반출 주 2회 허용, 주 1회 AI 검사, 계분반출 금지, 출하 5일 전 신고, 출하 1일전 간이잔디킴검사 실시 등 강화된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와중에 특별경계령이 시행되면서 지난 23일 AI 방역실태 긴급 점검에 나섰다. 이날 시는 관내 도계장인 심그린푸드를 찾아 소독시설 관련 상황보고 및 기록관리, 소독필증 발급내역 등 전반적인 방역실태를 확인했다. 심그린푸드는 신단계, 종계 등의 노계를 처리하는 도계장으로 2017년 10월

자체거점소독시설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1일 60,000수 정도를 처리할 수 있다. 정현을 시장은 "최근 철새가 북상하고 기온이 상승하면서 AI방역이 느슨해진 면이 없지 않다"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도계장으로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철저한 소독과 소독필증 발급, CPS 장착여부 등을 확인하고 AI가 익산에 유입되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AI가 익산에 유입되지 않도록 가금농가의 철저한 소독을 기본으로 외부인 및 차량 출입통제, 농가모임자제, 철새도래지 방문제한, 축사별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 원광대, 전국레슬링선수권 대학부 종합단체 준우승

금3·은2·동메달 2개 획득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강원 철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36회 회장기 전국레슬링선수권대회에서 원광대는 금메달 3개와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원광대학교가 제36회 회장기 전국레슬링선수권대회에서 대학부 종합단체 준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강원 철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원광대는 금메달 3개와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금메달은 대학부 자유형 61kg급 이영현(체육교육4) 선수와 68kg급 최학준(체육교육3), 92kg급 이철연(체육교육) 선수가 획득했으며, 자유형 74kg급 고재균(스포츠2),

그레코로만형 68kg급 한재호(스포츠1) 선수가 은메달을 차지하고, 자유형 61kg급 장우혁(스포츠1), 74kg급 김민선(스포츠3)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했다. 특히 자유형 68kg급 금메달 최학준 선수는 1회전 영남대 김하늘, 2회전 제주국제대 김현강 준결승에서 한남대 천선우 선수를 차례로 누르고 결승에서 동아대 육석기 선수를 10점차 테크니컬 풀승으로 이겨 금메달을 차지했으며, 61kg급 이영현, 92kg급 이철연 선수도 금메달을 획득해 이번 대회에서 대학부 자유형 3체급을 석권했다. 이어 원광대는 은메달 2개와 동메달 2개를 더해 대학부 종합단체 준우승에 올랐다. 김성태 감독은 "첫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열심히 훈련에 임해 준 선수들에게 고맙다"며, "10월에 익산에서 개최되는 제99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좋은 결실을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 익산시,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안보결의 대회

서해수호를 위해 목숨 바친 호국영웅들을 추모하기 위한 행사가 익산에서 마련됐다. 익산시 안보단체협의회는 지난 23일 오전 11시 국민생활관에서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추모분향소를 설치하고 각 기관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및 안보결의 대회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안보 관련 사진 전시와 함께 현화·분향, 현시낭독, 대화사 추모사 "북한의 도발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회원 대표의 결의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

됐다. 김철모 익산시 부시장은 "서해수호를 위해 목숨 바친 호국영웅들의 애국정신을 시민 모두가 기억해주시기를 당부한다"며 "앞으로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호국·안보정신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금 최대 30만원 지원

군산시가 질병이나 단전·단수 등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를 대상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금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등학생에게 수확여행비를 개인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거나 4인기준 소득 3,615천원, 재산 8,5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미만인 군산시 거주자이며, 의료비, 공공요금 체납지연, 생계지원비 등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군산시 희망복지지원단(▲454-3083)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판관 기자

## 익산시, 시외·고속버스 터미널 심장충격기 설치

익산시(시장 정현을)는 시외버스터미널 및 고속버스터미널에 각 1대씩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익산시로 들어오는 관문인 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은 항상 많은 이용객들이 붐비는 곳으로 심정지 환자의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했다. 자동제동기라고도 부르는 자동심장충격기는 환자 피부에 전극을 부착하고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의 정상 리듬을 가져오게 하는 의료장비로 심정지 환자가 발생할 경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동시에 사용해야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익산=장양원기자

## 익산시-우체국, 전국체전 홍보 업무 협약

2018년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주 개최지인 익산시는 지난 23일 익산 시청에서 정현을 익산시장과 장재혁 익산우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전국장애인체전 홍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익산시와 익산우체국이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개최를 위해 각 기관이 갖고 있는 자원을 적극 활용·융합하여 전국체전 홍보에 주력하고, 필요한 정보에 대해 상호 공유·발굴하여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목표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체국은 160여 명의 집배원을 활용해 익산시 구석구석에 전국체전 홍보를 실시하고 우체국 오토바이나 차량에 전국체전 홍보 깃발이나 스티커를 부착해 다방면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 익산시는 우체국의 다양한 상품을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참신한 전국

(장애인)체전 홍보를 펼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장재혁 익산우체국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우체국과 익산시가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라며, 익산우체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하여 전국체전 성공개최를 위하여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현을 시장은 "익산시 관내 방방곡곡을 다니시고 모든 시민들에게 직접 대면홍보를 할 수 있는 집배원들은 최고의 홍보 요원이라며 익산우체국과 협력하여 다양한 홍보를 통해 전국체전 범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99회 전국체전(2018. 10. 12.~18.)과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2018. 10. 25.~29.)은 주 개최지인 익산 종합운동장에서 개·폐회식을 갖고 익산시를 포함 14개시·군 70개 경기장에서 분산하여 경기를 치른다. /익산=장양원기자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동북아경제추진 명품도시 군산